



브라질産 코피값 急騰

최근 「브라질」의 「코피」가 가격이 급등, 사상 최고가격인 60kg들이 1포당 약 1백 45.63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코피」의 국제가격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칠것 같다.

작년 7월 서리피해로 금년도 「브라질」의 「코피」 예상수확량이 2천 8백만포에서 7백만포로 크게 격감됨에 따라 얼마전부터 「코피」값이 급등, 「상파울루」주 「모지아나」지방에서는 이미 60kg들이 1포당 약 1백 4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상승품은 사상최고가격인 1백46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브라질」의 「코피」값 급등은 국제시장에도 민감하게 반영되어 「런던」에서는 「롭스터 코피」의 선물가격이 톤당 1천3백파운드를 넘어섰으며 「뉴욕」 시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코피」가 올랐다.

「브라질」 국내의 분말 「코피」 가격은 현재 kg당 약 4달러 27센트로 이는 작년 서리피해가 있기전인 7월의 가격 1달러 28센트에 비해 무려 3백 30%나 대폭 인상된 것이다.

異種교배 大豆 개발

세계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大豆가 효율적인 단백질 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美國의 醫·化學 메이커인 화이저社は 수확시 天然物보다도 20~30%를 증수할 수 있는 異種交配 大豆 개발에 성공했다.

동사에 의하면 이 새로운 異種大豆는 이미 실험재배도 거쳤으며 이제 原料種子를 대량으로 育成하는 商業栽培의 시험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異種交配에 의한 收量增大는 지금까지 옥수수에서 성과를 올린바 있는데 異種交配는 1대에 限하며 교배후 原料種子를 育成하고 이것을 재배한다음 따로 育成해놓은 原料種子를 다시 뿌리게 되어있다.

그래서 美國에는 異種交配에 의한 原料種子를 생산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업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화이저社가 개발한 異種交配 大豆도 상업베이스가 맞다면 앞으로 개발된 大豆種子가 시장에 새로 등장할 것인데 이미 화이저社는 植物特許를 취득했다.

世界原糖생산 史上최고

美農務省은 최근 發表한 雪糖報告를 통해 75~76년도의 世界原糖생산량은 약 9천 40만 톤에 달해 사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最高은 73~74년도의 8천 9백 60만 톤이었으며 작년실적은 8천 6백 40만 톤이었다. 또한 同報告는 75~76년도의 消費量은 9천만 톤으로서 전년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原糖時勢는 내년도의 수확전망이 확실할 때까지는 小浮動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현재의 在庫量은 비교적 석어 7급판계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시세를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濠洲의 76년 原糖生産은 총 3백 20만 ~ 3백 5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75년 실적은 2백 85만 6천 톤이었는데 그 內譯은 「퀸즈랜드」州 2백 75만 2천 톤 「뉴사우스웨일즈」 10만 4천 톤이었다.

世界 食糧會議 교착

世界食糧理事會(WFC) 회의에 참석한 제 3 世界國家들이 예상외로 과대한 요구를 제기한 데 대해 先進工業國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會議결과에 暗影을 던져주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른바 77「그룹」의 일부代表들이 世界식량난 완화를 위해 先進工業國들에 추가 食糧원조를 다짐하라는 과격한 요구를 했으며 美國을 포함한 先進國들은 이를 즉각 거부, 3일간 열리는 이번 會議의 주요문제 토의를 뒤로 밀어둔채 격렬한 論爭을 벌였다고 전

했다.

77「그룹」의 일부「아프리카」·「아시아」·「라틴아메리카」國家들은 富國들에 심지어 年間 80억「달러」의 食糧援助를 제공하라는 강경노선의 요구를 제기, 이에 놀란 다수의 開發途上國들이 이요구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77「그룹」자체의 의견이 분열되었다고 소식통들이 말했다.

日, 쌀生産 과잉으로 고민

日本은 쌀生産 과잉문제와 아울러 쌀 生産 중지를 거부하는 완고한 農民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北部日本의 도요사카 市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當局은 최근 쌀대신 다른 農作物을 재배토록 지시한 公式정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33인의 農民을 提訴했다.

또한 도요사카 市 남쪽 오가마지방 農民들은 이같은 指針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모내기를 단행하는 한편 원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며 政府를 告訴했다.

朝日新聞은 日本의 다른지방 농민들도 이같이 도전적인 農民들의 예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쌀 生産을 감축하려는 政府의 政策은 암초에 부딪혔다고 보도 했다.

農林省 관리는 政府의 價格지원 劃計 때문에 쌀 農事로 인한 소득이 양파, 감자, 연초등 農事보다 큰 까닭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kg당 약 2달러인 높은 쌀값 때문에 1975년 日本의 과잉 쌀 生産은 10억 8백만 톤에 달했으며 今年에는 9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높은 쌀값 때문에 日本쌀의 對外輸出도 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관리는 덧붙였다.